기계학습 프로그래밍 감상문

이름 : 유병호

학번 : 202136002

학과 : 컴퓨터공학과

담당 교수명 : 이명규 교수님

머니 인사이드 채널의 ["이 3가지는 필수" 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 (카이스트 김대식 교수)]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.

먼저 초반 부분에선 인공지능개론처럼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었더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. 1956년, 인공지능이 처음 제안되었다던지, 초반의 인공지능을 기계적 프로그래밍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던지 하는 내용들 말이다. 그래서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채로 영상을 시작하니 좀 더 이해가 잘 가서 좋았다.

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학습 기반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부턴 조금 달랐다. 지금 현 수업인 기계학습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렇고 지도니, 반지도니, 강화니 학습 기반 인공지능에 대해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지만 이전까지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단순히 넘어갔었다.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대단한 기술이었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특히 이를 처음 제안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원래 심리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따낼 정도로 혁신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을 생각해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.

그 다음부터는 좀 더 실용적이고 공감가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. 인공지능이 유니 모달에서 멀티 모달로 발전해 보다 다양한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건 현 인류가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 아닌가. 그리고 chat GPT 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 유머로도 많이 소모되지 않았는가.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

다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취업전선, 특히나 우리 같은 개발 직종에선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무섭다. 지금도 프로그래머가 아닌 단순 코더들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 같다.

마지막으로 꼭 해 봐야할 3가지에 대해 말하는데 순서대로 먼저 1. ai 에이전트 사용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. GPT 를 그저 검색 도구로만 사용하는 건 말한 그대로 너무나도 낭비 같기에. 다음 2.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과 특성상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넘어갔다. 마지막 3. 5분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재밌을 것 같고 인공지능 사용법을 익히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 이것 역시도 활용해 볼 예정이다.

인공지능을 잘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이다. 어떤 것을 프롬프트에 넣고 수많은 답 중 어느 걸 선택할지는 결국 사용하는 본인에 달렸다. 빠른 속도에 발전하는 사회 속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올바른 ai 사용법을,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인재가 되어야 한다.